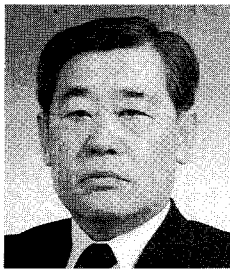


소 산업정보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소 전 산 화 사업 분 부
본 부 장 김 현

1.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추진 배경

국내에서 사육중인 한우 전두수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2일자로 “한우 전산입력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여러분의 양해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문제점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소 사육두수를 농림부 표본통계조사와 시·군행정 통계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 조

시간의 차이가 크고 번식·비육농가 구분이 안 되고 있으며, 또한 항시 현재 시점의 축종별, 월령별, 사육규모별 동향파악과 일정기간 이후의 사육 출하두수까지 예척이 가능하도록 한우 및 젖소의 사육농가별, 개체별로 전산입력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면 거래·도축등의 분포 사항을 파악하므로써 과학적인 소 수급관리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두번째, 현재 한우개량단지 250개소를 대상으로 한우개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량단지 밖의 사육농가는 차별대우를 받게되어 추가 지정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2,001년의 최고기 수

입 전면개방에 대비 전국의 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개량사업 투자효과를 신속히 전국단위로 확산하는 체계적인 개량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번째, 소 전산화사업을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므로써 모든 송아지 생산농가에게 인공유를 공급하고 전산 등록비를 면제시킴으로써 송아지 생산장려의 효과를 거양하고 완전개방으로 가격폭락에 대비 송아지가격안정제 실시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며,

네번째, 현재는 질병발생농장 자체의 확인이 어려우나, 소 전산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별, 가축별 예방치료 및 치료 검진결과를 전산

수록하면 도축장에서는 바코드가 표시된 이표에 의거 추적하므로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하여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배경하에 추진하여 왔다.

2. 추진실적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1995년 8월에 사업을 확정하고 동년 9월부터 10월사이에 지역별로 실무자들 교육을 완료하여 1995년 11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었고 98년 7월 현재까지 사업실적을 간추려 보면 시·도별 개체자료 및 도축자료 입력두수는 <표1>과 같다.

<표 1> 시·도별 개체자료 및 도축자료 입력두수

(단위 : 두)

시·도별	개 체 자 료			도 축 자 료		
	'95~'97	'98.7월말	누계	'95~'97	'98.7월말	누계
서울특별시	630	257	887	26,395	15,746	52,141
부산광역시	5,652	1,129	6,781	12,366	68,082	80,448
대구광역시	23,748	2,641	26,389	-	2,541	2,541
인천광역시	23,556	3,530	27,086	7,689	10,379	18,068
광주광역시	10,601	868	11,469	237	2,796	3,033
대전광역시	5,479	1,552	7,031	64	12,860	12,924
울산광역시	44,636	2,566	47,202	6,144	7,330	13,474
경 기 도	406,726	67,905	474,631	20,768	15,704	36,472
강 원 도	238,895	44,375	283,270	14,128	10,579	24,707
충 북 도	240,489	33,198	273,687	7,274	6,910	14,184
충 남 도	433,163	56,208	489,371	23,560	20,059	43,619
전 북 도	272,009	24,096	296,105	7,655	5,361	13,016
전 남 도	515,235	56,911	572,146	11,490	3,223	14,713
경 북 도	543,467	102,567	646,034	17,275	19,222	36,497
경 남 도	499,630	53,952	553,582	15,621	17,089	32,710
제 주 도	49,801	6,375	56,176	545	1,502	2,047
합 계	3,313,717	458,130	3,771,847	171,211	219,383	390,594

* 도축자료 입력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개체자료 및 도축자료 이외에 바코드 귀표, 장착기, 체위측정치, 전산장비등 공급실적과 농가조사자료입력, 전산입력비 지급, 전산등록증 발급, 바코드 귀표 장착시 발생한 폐사 및 부상축에 대한 보상비 지급등은 본고에서 제외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3. 추진상 제기 되었던 문제점

생산된 송아지의 귀표장착에서 조사표 작성, 입력, 전송과 거래가축의 이동, 도축장에서의 폐사축, 가축질병 검진등 모든 자료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요약을 간추려 보면,

가. 소 바코드 귀표 장착이 부진한 실정이었다

소 사육농가 측면에서 볼때에 바코드 귀표 장착시 출혈 스트레스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세원 노출 우려가 농가 호응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무슨 실익이 있느냐 하는 풍조로 폐사축·이동축(매매축)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농가에게 지급되는 조사사례비(두당 6,000원 상당의 인공유 또는 현금)이외에 농가의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의 미흡에 따라 기피하는 실정이며, 장착요원(인공수정사 등)의 측면에서 볼때에 1995년 사업 착수시는 많은 두수를 장착함에 따라 본업 이외의 많은 수입이 있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생산되는 송아지에 한하여 장착하도록 함에 따라 1~2두의 소규모 사육 농가나 원거리인 경우 장착을 기피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귀표 장착이 부진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조사표 작성과 전산입력의 부진이다.

소 장착요원이 바코드 귀표 장착시 농가조사표 및 개체조사표를 작성한 후 시·군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절차의 번거로움등으로 월1회씩 일괄 제출하는가하면 대규모 집단 사육농가의 경우 장착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코드 귀표장착 후 조사표를 일괄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조사자료가 불분명하여 입력에 “에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 하였으며 조사표자료 입력시 일부 시·군 축산계(과)의 전산입력 전담직원이 없어 축산직 공무원이라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교체시 전산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산입력 전담 직원이 있어도 컴퓨터 조작미숙으로 데이터 “에러”가 발생하거나 기허 입력된 자료의 손실 또는 기기장애등이 발생하여 전산입력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실정이 아니며, 더군다나 전산 자료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농림부의 통계전산망을 이용토록 되었으나 기존 농림통계 전산망의 기기 및 시설노후로 송신장애가 발생되거나 전송속도 지연 또는 기허 입력한 자료의 손실등으로 많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 변동사항 입력의 부실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 사육농가가 문전에서 거래하였을 경우나 가축시장에서 매매를 하였을 경우 “소 거래내역 조사표”를 시·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소 사육농가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세원노출 우려로 신고가 부진하고 가축시장이 새벽에 개장되어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어두워서 바코드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라.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및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는 경영주가 도축우에 대한 바코드 번호를 확인하여 경영주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가 “일일 도축상황 및 등급판정결과 조사표”를 시·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바코드 번호 확인 번잡과 경영주, 축산물검사원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업무한계성으로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소 전산화사업을 정예화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사업축소에 따른 소 전산화사업이 폐지된다는 선입견을 갖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4. 금후 추진방안

가. 기본추진방안

사업명칭을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소 산업 정보화사업”으로 개명하고 한국종축개량협회내의 “소 전산화 사업본부” 부서를 “소 산업 정보화 본부”로 개칭하여 정보화사회

에서 축산업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유도하지는 데도 목적이 함축되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소 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하부기반(개체 식별시스템)구축으로 소 개체 고유번호(ID Number)부여 및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두번째, 각종 소 관련 단위 정보 서비스망(가축개량정보시스템, 가축질병·방역시스템,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을 총괄 연계한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므로서 소 사육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한 농가요구정보의 전달체계 및 기술 지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나. 세부 실시방안

본고에서는 소 개체 식별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소 개체 식별시스템 구축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사업대상 조정 에 의해 개체 식별 개체가 필요한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코드귀표장착 대상을 한우개량단지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특수기축공제사업, 종축등록사업, 그리고 3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 사육대상을 축소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사업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의한 소 개체 식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다.

① 사업주관

중앙은 한국종축개량협회내의 “소 전산화사업 본부”를 “소 산업 정보화본부”로 개칭하고 지방은 시·군 전산추진위(시·군 축산계)하든

업무를 지역축협 및 낙협으로 이관토록 하여 자료 발생기관에서 직접 전산입력토록 하였다.

② 바코드 귀표 장착요원

시·군 전산화요원 중 인공수정사, 축·낙협 지도원, 리장등이 수행하는 장착 업무를 농가에서 직접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부락단위의 장착기동 기자재 공급 및 농가의 장착기술 숙달시까지 지역 축·낙협직원, 한국축육개량협회직원, 부락 또는 리·동단위로 지정된 기자재 관리농가등은 해당 농가의 요청에 의거 귀표를 장착하도록 하였다.

③ 농가조사사례비 및 장착비 지급등 변경 사항

현행 농가조사사례비는 두당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였고, 시·군에서 입력한 자료에 대한 전산입력비 건당 60원씩 지급을 폐지하였고, 전산입력한 소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산등록증”발급도 폐지하였으며, 바코드귀표 장착시 발생한 사고축에 대한 보상제도도 폐지하였다.

다만, 바코드 장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바코드 “장착비”는 현행대로 두당 3,000원씩 지급하되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착한 사람이 소속된 단체로 일괄 송금하도록 하였다.

④ 기타

시·군에 배치한 전산장비는 지역 축협 및 낙협으로 이관토록 하였고, 조사표는 대폭 간소

화하여 농가 및 개체자료가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자료 전송도 한우개량단지사업과 젓소능력검정사업은 축협중앙회 BBS망을 통하여 수시로 자료인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과 가축공제사업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함에 따라 전송업무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도축자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월2회 전송하도록 되어 있어, “소 산업 정보화본부”에서는 도축자료를 송아지를 생산하고 전산등록한 농가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로 정립하였다.

“소 산업 정보화사업”은 축산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라고 생각할 양측가가 있겠지만, 어려울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EU 여러나라들이 바코드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 대만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의 전두수에 대한 바코드 귀표 장착을 의무화한 것도 우리나라 ‘소 산업 정보화사업’의 발전이 확실시 된다.

바로 눈앞에 실익이 보이지 않지만 한발, 한발 다가서면 눈앞에 무언가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소나무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나무 숲을 볼 줄 아는 지혜로 어려운 축산불황을 헤쳐 나가야만이 축산이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 다 함께 “소 산업 정보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고, 농가는 개체별로 모든 자료의 기본이 되도록 하여 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